

제자훈련 자료



# 그리스도의 나타남

경건하게 기도하며 사는 삶  
2013 기도주간

복음 언약 교회



복음 언약 교회



**W**hat does it mean to pray through life as a sacrament? In Holy Communion we share in the taking, blessing, breaking and giving of Christ. As bearers of the image of God, we believe that something of Christ is revealed through us—as chosen, blessed, broken, and given people of God. This week of prayer resource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sacramental nature of our lives.

“기도주간”은 [www.covchurch.org](http://www.covchurch.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자 요약:** 저자 Taloyo는 Trinity Covenant Church in Salem에서 목사로 섬기고 있다. 그녀는 그녀의 영혼의 동료, 카를로스 Taloyo와 결혼, 두 아이 알렉스와 세이지가 있습니다. 그녀의 소망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 예배, 기도의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영적 여정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와서 더 깊은 치유와 성장을 위한 따뜻함을 느끼는 깊은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Scripture taken from the Holy Bible, Today's New International Version® TNIV® Copyright © 2001, 2005 by International Bible Society®. All rights reserved worldwide.

This resource is available in English, Spanish, and Korean.  
Download from: [CovChurch.org/resources](http://CovChurch.org/resources)

Para recursos del Departamento de Formación Cristiana en español comunícate con Wilson Herrera: [wilson.herrera@covchurch.org](mailto:wilson.herrera@covchurch.org)

© Copyright 2012 The Evangelical Covenant Church



**Department of Christian Formation**  
**The Evangelical Covenant Church**  
Website: [CovChurch.org](http://CovChurch.org)  
For information: Department of Christian Formation  
[christianformation@covchurch.org](mailto:christianformation@covchurch.org), (773) 784-3000

## DAY1: 새로운 탄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2:20

**성경읽기:** 갈라디아서 2:20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지요? 라고 아이가

질문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럴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너의 마음에 계시지” 혹은 “우리 주위에 사랑과 친절함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라고 대답할 수 있다. 이 미스테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참으로 어렵고 추상적인 컨셉이다. 그러나 추상적이면서도 너무도 확실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몸과 피를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이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성령님의 능력과 임재하심으로 우리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살아계신 증거이다.

아비라의 테레사의 말처럼,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육체가 없으시나 우리의 몸을 입으셨다.” 이 미스테리의 하나님은 육체를 통해 우리와 교통하고 계신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것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전6:19)

이와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사인 것이다. 이 성사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Mysterian(미스테리언)을 번역한 것으로 감추어져 있던 무엇인가가 나타내어졌음을 뜻한다. 이 단어의 뜻은 “보이지 않는 속안의 은혜가 겉으로 들어난 실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우리는 성사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보통 교회에서 행하는 두가지 성사를 떠올릴 수 있다. 바로 침례(세례)와 성찬식이다. 이 두가지의 중요한 교회적 행사를 무시하자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또 하나는 우리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실패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실체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어 지고 있으며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묵상(개인이나 그룹):** 지난주(언제) 혹은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체험했습니까? 오늘 무엇이 당신을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도전하거나, 체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까?

**기도:** 주님, 제가 하는 행동이나 말을 통해 성령 충만하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DAY2: 성찬식

“우리가 축복하는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나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전10:16-17

**본문:** 고린도전서 10:16-17

예수님이 함께 하신 본문의 이 식사에는 많은 이름들이 주어졌다.: 최후의 만찬, Eucharist, 주님의 성찬, 떡을 떼, 본인의 교회에서는 ‘성찬식’이라고 불려졌다. Holy(성)이란 단어는 우리의 일상적인 모임에서 구별되어짐을 뜻한다. Communion이란 단어는 그리스어의 Koinonia라는 ‘나눔’이나 ‘교제’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사도 바울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전10:17)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와 교제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 또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찬식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행사로써 이를 통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던 그 다락방으로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가졌던 매주 아침의 모임을 재현해주며, 오늘의 전세계 교회와 연결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또한 이 성찬예식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며, 주님의 역사적 죽음, 기적적인 부활, 또한 곧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기도 하다. 이 성스러운 성찬의 순간에 우리는 과거와 현재가 교차함을 체험하는 신비로움 속에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체험하는 신비로움 속에 우리 자신은 하나님앞에 나타내어지고, 하나님은 우리가운데 거하시게 된다.

성찬예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세상에 하고 계시는 중요한 패턴을 볼 수 있다. 이 첫 성찬예식에서 그리스도는 떡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떼시고, 나누어 주셨다. 바로 주님 자신의 삶에 나타난 패턴이다.

Henri Nouwen은 우리 삶에는 네가지 성령의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 말들은 그리스도인인 나의 삶을 요약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써 세상의 떡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고, 축복받았고, 떼어졌고, 주어졌기 때문이다. (Henri J.M. Nouwen, Life of the Beloved)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찬의 패턴은 성스러운 현실과 리듬이 된다. 우리는 함께 떡을 받아 축복하고, 떡을 떼고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의 이웃과 세상에 나누어 주는 것이다.

**묵상(개인이나 그룹):** 성찬식은 당신에게 어떤 경험입니까? 어떻게 거룩하거나, 다르다거나, 성스럽게 여겨집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함께 성찬식을 갖는다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 당신의 손으로 떡을 받아, 축복하고, 떼어서 주는 것을 연습해 보시오. 이것을 연습하면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매일 연습하세요.

## DAY3: 선택하심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다도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요1 3:1-2

**본문:** 에베소서 1:3-6, 요한1서 3:1-2

그리스도께서 떡을 받으셨다. 떡을 축복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음을 암시하는 아주 커다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의 전통 예식순서에서 결혼서약을 할 때, “나는 당신의 나의 합법적인 남편으로 선택합니다”라고 선언한다. 우리는 상대방을 내 평생의 동반자로 선택한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 영원히 그에게 속하게 하시고 세상에 증인이 되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하고 “(요15:16),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고 기름부은 것처럼 말이다. 이와 똑같은 현실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현재의 교회에 똑같이 적용된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벧전2:9)

“나는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흥분할 만한 사실이다. 그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팀에 뽑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 사랑받으며, 기름부음을 받은 현실 속에서 힘겨워 하기도 한다. 어쩌면 한번도 뽑히지 못했거나, 자신이 얼마나 귀중하고 사랑받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느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마귀가 주는 의심과 거절당함과 내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싸우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절망적인 메세지가 너무도 많다. 이 메세지들은 그리스도안에서의 우리의 새모습(정체)에 용기를 주거나 양육해 주지 못한다.

우리의 선택받은 새사람의 모습은 다른 선택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잘 자라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이 서로 진실된 새 모습을 위로하고 확인시켜줄 때, 자신 스스로는 믿기 힘들어도 더 잘 해낼 수 있는 것이다.

**묵상(개인이나 그룹):** 선택받았다는 것은 어떤 느낌인가? 당신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선택받았음을 확인시켜 준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기도:**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은 너무도 귀한 일입니다. 한편으론 받아들이기 어렵기도 하고 너무 굉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사실과 그 목적을 위해 바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이 바로 그 날이 될 수 있을까요?

## DAY4: 축복받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15:9

**본문:** 요한복음 15:9

예수님께서 떡을 받으시고 축복하셨다. 축복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Favor)를 요구하고, 어떤 목적을 위하여 따로 구별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사람들이나, 장소, 물건 등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축복하여진 예가 많이 나와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과 호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요단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확신의 말씀을 들은 후에 시작되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예수님 또한 그의 제자들과 우리에게 같은 내용의 축복과 확신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얼마나 굉장한(놀라운) 사실인가-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그 만큼의 사랑과 확신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Tom Wright(톰 라이트)는 그리스도께서 떡을 떼어 축복하신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축복한다는 것은, 이 축복을 받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N.T. Wright, The Meal Jesus Gave Us) 이와같이 우리도 축복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구별 되어야겠다.

기도는 우리를 축복의 길로 연결시켜주는 훌륭한 방법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일때, 우리가 하나님의 특혜(favor)를 받고 있음을 다시 상기시켜준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알게 된다. Nouwen(노우웬)은 말하기를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기쁨 중에 하나는 다른 이들도 선택받았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굉장한 기회, 바로 다른 이들에게 그들도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을 상기시켜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기 위해 부르받은 것이다.

**묵상(개인이나 그룹):** 누군가가 당신이 하나님앞에서 누구인가를 확인시켜 준 적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어떤 경험이었나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당신은 그 누군가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주님, 저는 주님이 주시는 확신과 축복안에 살고 싶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사랑이 항상 지속적이고 실재라는 것이 믿기 어려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저를 따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에 감사드립니다.

## DAY5: 떡을 떼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12:24-24

**본문:** 요한복음 12:23-25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 몸이니라”(마26:26)라고 하셨을 때, 과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상상하기가 참 힘들다.

부활 후의 일어난 일은 확실했다. 예수님의 몸은 부서지고 그의 피는 희생양으로 쏟아짐으로써 우리는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어렵듯이나마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던 뜻이 바로 이것이라고 알고는 있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영광의 날에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달라는 요구에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는나?”(마20:22)라고 응답하셨을 때 제자의 길에는 부서져야 한다는 것 또한 포함하고 있었다.

“부서짐”이라는 말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혼돈하고 어지러워져 있는지도 포함하고 있다. 모든 피조물의 고통과 탄식은 얼마나 이 세상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불완전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속사람이 탄식하는 것은, 로마서8장에 따르면, 우리 삶의 죄로 인한 결과인 것이다. 우리는 부서지고 불완전한 도구이다.

“부서짐”이라는 상태를 두 가지 견해로 바라볼 수 있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비롯된 피해자로서 당하는 “부서짐”이다. 다른 또하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것으로 인해 따라오는 댓가와 희생으로 인한 “부서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부서짐과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숨겨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이 부서짐 안에서 안위해서도 안된다. 대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분께 날마다 부서지고 선택받고, 축복받은 우리 자신을 드러야 한다.

**묵상(개인이나 그룹):** 당신의 삶 속에서 무엇이 부서져 보입니까? 새 삶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 죽어져야 합니까? 어느 부분에서 새 삶이 자라고 있음이 보입니까?

**기도:** 예수님, 주님은 고통과 죽음이 지난 후에 새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신뢰를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주님께 부서진 이 모습대로 저를 드립니다. 저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위해 사용하소서.

## DAY6: 주어짐(드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예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마10:7-8

**본문:** 마태복음10:7-9

도그리스도께서 떡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요6:48)라고 하셨고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요6:51)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는 그의 몸을 아무 값없이 제물과 선물로 주심으로써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요10:10) 우리는 성찬예식의 패턴과 이 세상의 영적 리듬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값없이 희생해야 할 소명을 찾게 된다.

그러나 한편은 공짜가 아닌 드림이 있다. 때로 우리는 꼭 주어야 하기 때문에 줄 때가 있다. 혹은 어쩔 수 없는 인간관계 때문에 억지로 줄 때도 있다. 이런 뜻의 “준다”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준다”와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이 “준다”라는 뜻은 은혜로 가득찬 선택으로써 나보다 다른 사람을 앞에

놓는다 라는 뜻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축복받았고, 부서지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할 때만 나타나는 선택이다. 이 사실을 온전히 이해할 때만 나타나는 선택이다. 이 사실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주는 일이 인색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넉넉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줄 수 있다.

우리는 교회에서 ‘드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보통 재정적인 면이나 필요한 부서에서 헌신하는 것을 말한다. 이 또한 소홀해서는 절대 안될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 또한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을 중단하고, 아프거나 슬퍼하는 친구와 함께 앉아있거나, 하기 싫은 심부름을 같이 해준다거나, 교회학생의 학교행사에 참석에 주는 일, 음식만 배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떡을 떼는 일 등 모두 중요하다.

이 “드림/준다”에 대해서 Nouwen은 “내가 나 자신에게 물어볼 때, ‘누가 나를 가장 많이 도와주는가’ 그 대답은 ‘바로 자신의 삶을 나와 나누고 싶은 사람이다’”(Henri J.M. Nouwen, Life of the Beloved)라고 말한다.

**묵상(개인이나 그룹):** 오랫동안 바라던 선물이나 깜짝 선물을 받을 때 어떤 기분인가? 당신의 삶에 가장 적당한 때에 나타난 사람이 언제였나? 이 주간에 당신이 함께 할 수 있는 선물을 누구에게 줄 수 있을까?

**기도:** 주님, 너무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도 아무 값없이 기쁘게 드려서 다른 이들이 주님을 알 수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 DAY7: 나타나심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눅24:30-32

**본문:** 누가복음24:28-32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스러움에 대하여 묵상하며 이 주간을 시작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더욱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를 바란다. 16세기 아빌라 테레사의 기도문에는 이것을 확인시키고 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외에는 다른 몸이 없으시고 이 세상에서 당신의 손과 발외는 다른 것이 없으시고, 당신의 눈을 통해 이 세상을 불쌍히 바라보시며, 당신의 발이 가는 곳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당신의 손이 가는 곳에서 세상을 향해 축복하신다.

이와같이 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공급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용서와 진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실망하고 당황하고 있었다. 그들은 답을 찾지 못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때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치시고, 더 엄청나게도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것은 떡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떼시고, 주는 과정에서 그들의 눈이 열려진 것이다. 성찬예식이 성스러운 행사라는 것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와같이, 영적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하나님께 선택받고, 축복받고, 부서지고, 또한 드러지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있지 않을까?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여정에 함께 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도록 격려하신다.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선택받고 축복받음을 감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자신을 값없이 거저 드리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구세주 안에서 기쁨을 선포할 수 있다.

**묵상(개인이나 그룹):** 이 기도의 주간으로 인해 성찬예식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졌나요? 당신의 영적 생활을 달라졌나요? 이 영적 리듬-선택받음, 축복받음, 부서짐, 주어짐- 중에서 어느 부분에 더 많은 시간과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 주님, 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손과발과 눈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지속적인 함께 하심과 격려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주간동안 주님의 말씀의 선물과 임재하심을 감사드립니다.